

학교도서관 전담 전문인력이 학생 독서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chool Librarian on Students' Reading Behavior
: With Special Reference to Daegu Metropolitan City

김 종 성(Jong-Sung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1. 독서자료 입수 경로 |
| 1. 연구의 의의 | 2. 독서 장소 |
| 2. 연구의 내용 | IV. 학교도서관 이용 |
| 3. 연구의 방법과 대상 | 1. 학교도서관 이용률 |
| 4. 관련연구의 경향 | 2. 학교도서관 이용 목적 |
| II. 독서 경향 | 3. 학교도서관 이용 만족도 |
| 1. 독서 선호분야 | 4. 학교도서관 이용 교육 |
| 2. 도서대여점 대여도서 분야 | 5. 독서 관련 행사 |
| III. 독서환경 의존 경향 | V. 결 론 |

초 록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생 2,865명을 표본으로 학교도서관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 간에 어떤 독서행태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조사하였다. 독서 경향, 독서환경 의존 경향, 학교도서관 이용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학교도서관에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더 균형 있는 독서 경향을 보이고, 공적 독서환경 의존 경향이 더 높고, 학교도서관 이용률이 더 높으며 태도가 더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독서교육, 독서지도, 학생독서실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understanding on the influence of school librarian on students' reading behavior. The Writer has collected and analysed data from 2,865 students in Daegu Metropolitan City according to statistical method and process. In conclusion, the writer proved school librarian give much developmental influence on students' reading behavior.

Key Words: School Library Media Center, School Librarian,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Reading Guidance, Reading Promotion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js1010@kmu.ac.kr)

• 접수일: 2007년 2월 21일 • 최초심사일: 2007년 3월 5일 • 최종심사일: 2007년 3월 22일

I. 서론

1. 연구의 의의

최근 몇 년 동안 독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주요 대학의 입학시험에서 논술이 당락의 변수로 등장하면서 학생 독서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듯하다. 이런 분위기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초등학교에까지 확대되어 학교 안팎의 독서교육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흐름의 한 편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환경이 정비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면서 전담 인력도 배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서에 대한 관심과 기대라는 사회심리적 에너지를 학교도서관이라는 실제적인 기제와 결합하여 발전하도록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서와 관련한 정책과 사업을 계기로 학교도서관을 개선하고 보편화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독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건전하고 주체적인 독서 능력 함양에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에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정상 운영을 위한 가장 핵심 조건은 인력 요소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의 전담 전문인력¹⁾이 학생 독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교도서관에 전담 전문인력을 배치한 학교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 간에 독서 행태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 차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탐색해 본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학교도서관 발전과 학생 독서문화를 개선에 전담 전문인력의 배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논의하였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의 기본 내용은 학교도서관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 간에 어떤 독서행태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독서행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독서분야 영역에서 학생들이 즐겨 읽는 도서의 분야와 도서대여점 이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학생들은 어떤 책을 주로 읽는지, 어떤 읽을거리를 위해 도서

1) 이 논문에서 '전담 전문인력'이라는 용어는 정규 사서교사와 사서자격자 가진 비정규직 인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학교도서관의 정규 인력은 사서교사이지만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훨씬 많은 실정이며 이 논문에서는 독서 영역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사서교사와 비정규직 사서를 포괄하였다. 본문에서는 '전담 전문인력' 또는 '전담 인력'으로 표현하였으며 같은 의미를 가진다.

대여점을 이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독서환경 의존 경향 영역으로 독서자료 입수 경로와 도서 정보원, 그리고 독서장소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어떤 외부 환경에 의존하여 도서 자료를 확보하고 도서 정보를 입수하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어떤 공간을 주로 이용하여 독서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도서관 이용 영역으로 학교도서관의 이용률과 이용 목적, 그리고 이용 만족도 등을 포괄적으로 탐색하였다. 전담 전문인력의 배치 여부에 따라 학교도서관 이용 행태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학생 독서행태의 여러 영역에서 전담 전문인력이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더욱 더 심층적인 탐구와 이해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대상교의 학생과 비대상교의 학생간 차이도 살펴보았다. 학교도서관 환경 요인이 학생 독서행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인력 요인의 영향 정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04년에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한 학생 독서 실태 조사 자료와 비교 분석하였다.²⁾ 시계열적인 관점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력 요소가 학생 독서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3. 연구의 방법과 대상

이 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특수학교 학생을 제외한 대구 광역시교육청 소속 초·중·고교생 전원을 모집단으로 하고 교육청, 학교급, 학년,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여부, 학교도서관 전담 전문인력 배치 여부 등을 고려한 다단계층화무작위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표본은 2006년 9월 1일 현재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전체 학생 426,479명의 0.67%인 2,865명에 해당한다. 표본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데이터 수집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프로그램 SPSS V.12.0K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조사대상 인원 구성 (단위: 명)

학교급	구분	성별		전담 인력		활성화사업		합 계
		남	여	배치교	미배치교	대상학교	비대상 학교	
초등학교		545	483	429	599	519	509	1,028
중 학교		753	435	316	872	763	425	1,188
고등학교		335	314	433	216	279	370	649
합 계		1,633	1,232	1,178	1,687	1,561	1,304	2,865

2) 2004년의 조사에서도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은 동일했으며 전체 분석대상은 3,021명이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2004년 대구 학생 독서 실태 조사(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2004).

4. 관련연구의 경향

일반적으로 학생 독서와 관련한 연구는 독서실태 조사를 통한 독서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와 학교도서관과 연계해서 독서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특정 학교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독서실태를 조사하고 독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³⁾ 특정 주제 분야와 관련한 독서실태를 조사하는 연구,⁴⁾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실태 조사 연구,⁵⁾ 특정 독서 프로그램의 성과와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⁶⁾ 특정 지역간 독서실태를 비교 조사하는 연구⁷⁾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학교도서관의 독서지도 활동을 검토하고 독서지도 방안을 포괄적으로 모색하는 연구,⁸⁾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고 특정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⁹⁾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학생들의 독서실태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기존의 관련 연구들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과 연계하여 독서 문제를 분석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들의 성과를 참조한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전담 전문인력이 학생들의 독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

-
- 3) 제수정, 실업계 고등학생의 독서실태와 독서교육에 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권태봉, 고등학생의 독서실태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독서지도 방안 연구(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노은희, 전북지역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독서실태 조사 연구(석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안수상, 초등학생들의 독서실태 분석을 통한 독서지도 연구(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김동이, 초등학생의 독서실태 분석과 바람직한 독서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임한별, 독서실태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독서지도 방안 연구: 7학년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주영순, 초등학교 학생의 독서실태 분석과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윤충원, 실업계 고등학생의 독서실태 분석에 따른 독서력 신장 방안(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윤정현, 초등학생의 독서실태 분석을 통한 독서지도 개선방향(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3).
 - 4) 김세영,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과학 관련 독서 실태와 성향 조사(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5) 박경애, 지체부자유학교 고등학생의 독서실태 조사(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김미경, 청각장애학교 고등부 학생들의 독서실태 분석(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6) 정재학, 중학생의 독서 실태 분석을 통한 '아침독서 10분 운동'의 효과 검증과 지도방법 연구(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7) 박종숙, 도·농 지역 독서실태 비교연구: 전주와 부안 지역을 대상으로(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허창도, 도시와 도서 벽지 아동의 독서실태 비교 연구(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김상권, 도시와 농촌 아동의 독서 실태 비교 연구(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 8) 강영수,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효율적인 독서지도법 연구(석사학위논문,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이선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초중학교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노지숙, 학교도서관의 독서지도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 9) 연은미,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프로그램 모형개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 이해영,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독서행태 및 독서능력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3); 김강선,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도서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3); 도유미,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05); 신수진, Storytelling을 통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독서흥미 유발 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존의 관련 연구들과는 차별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의 핵심 요소인 인력이 학생들의 독서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실증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독서 경향

학교도서관의 전담 전문인력은 학생들의 독서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학교도서관의 전담 전문인력이 학생들의 독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학교도서관 인력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학교도서관에 전담 전문인력 배치의 정당성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독서 선호분야

학생들이 평소에 즐겨 읽는 독서 분야는 전담 전문인력 배치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교급에 따라 정도차이는 있지만 독서 분야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러 독서 분야 중에서 전담 전문인력 배치여부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는 분야만을 발췌하여 표로 구성하면 <표 2>와 같이 나타난다.

초등학생의 경우 다른 분야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지만 과학, 만화 분야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과학 분야를 조금 더 선호하고 만화를 훨씬 적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일반소설과 무협지/판타지/추리소설 분야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일반소설은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이 10% 이상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협지/판타지/추리소설은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이 7% 정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소설 분야에서는 인력 배치교의 학생들이 17% 정도 높게 나타나고 무협지/판타지/추리소설 분야에서는 인력 미배치교의 학생들이 12%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오락적이고 가벼운 읽을거리를 선호하는 경향은 약하고 문학서적을 선호하는 경향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이야기 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이 독서 행태에서 더 건전한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독서 선호분야의 경향에서 활성화사업 대상교와 비대상교간의 차이는 인력 요소의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8권 제1호)

영향에 비하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만화를 선호하는 경향에서 활성화사업 대상교와 비대상교간의 차이가 2% 정도밖에 나지 않으며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독서 선호분야의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별이라고 할 수 있다. 초·중·고교생을 통틀어 독서 선호분야는 성별에 따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여학생은 동화나 소설분야에서 남학생보다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남학생은 오락적인 도서류에서 여학생보다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주요 독서 선호분야(단위: %)

학교급	독서 분야	구분	성별		활성화사업		전담 인력		전 체
			남	여	대상학교	비대상 학교	배치학교	미배치 학교	
초등학생	동화		16.5	40.2	27.6	27.7	28.0	27.4	27.6
	역사·위인전		21.8	12.0	15.4	19.1	17.2	17.2	17.2
	과학		17.1	6.6	14.3	10.0	14.7	10.4	12.2
	만화		27.2	18.8	22.5	24.0	18.9	26.4	23.2
중학생	일반소설		32.4	52.1	43.6	32.5	47.6	36.7	39.6
	무협지·판타지·추리소설		33.8	17.3	27.0	29.0	22.2	29.7	27.7
고등학생	일반소설		39.4	65.0	53.8	50.3	57.3	40.7	51.8
	무협지·판타지·추리소설		26.6	9.9	15.8	20.5	14.5	26.4	18.5

〈표 3〉 주요 독서 선호분야 비교: 2004년, 2006년(단위: %)

학교급	독서 분야	구분	2004년			2006년		
			전담 인력		전 체	전담 인력		전 체
			배치학교	미배치 학교		배치학교	미배치 학교	
초등학생	동화		26.5	24.7	24.5	28.0	27.4	27.6
	역사·위인전		12.2	19.8	17.1	17.2	17.2	17.2
	과학		9.1	7.5	8.0	14.7	10.4	12.2
	만화		33.9	27.5	29.7	18.9	26.4	23.2
중학생	일반소설		39.6	34.0	35.5	47.6	36.7	39.6
	무협지·판타지·추리소설		26.2	27.1	26.9	22.2	29.7	27.7
고등학생	일반소설		53.8	44.4	49.8	57.3	40.7	51.8
	무협지·판타지·추리소설		16.8	23.2	19.5	14.5	26.4	18.5

〈표 3〉과 같이 2004년과 2006년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더 흥미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04년과 2006년의 학생 독서 선호분야 경향을 보면 인력 요소에 의한 선호분야의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만화나 무협지·판타지/추리소설 분야는 인력 배치교는 감소하고 미배치교는 증가하였으며 그 밖의 분야는 인력 배치교는 증가하고 미배치교는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학교도서관의 인력 요소가 학생 독서행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원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더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지역에 처음으로 복수의 사서교사가 채용된 것이 2003년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2004년과 2006년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격차는 학교도서관의 인력 요소가 가지는 의미를 보여주는 증거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2. 도서대여점 대여도서 분야

학생들이 도서대여점에서 빌려보는 책의 종류도 전담 전문인력 요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소설류와 만화류를 비슷한 비율로 빌려보는 반면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은 소설류에 비해 만화류를 두 배 이상 많이 빌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서대여점 대여 도서 분야에서도 활성화사업 대상교와 비대상교간의 차이보다 인력 배치교와 미배치교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표 4〉 도서대여점 대여도서 분야: 2004년, 2006년 (단위: %)

구분 도서 분야	2004년					2006년				
	활성화사업		전담 인력		전 체	활성화사업		전담 인력		전 체
	대상 학교	비대상 학교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대상 학교	비대상 학교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소설류	31.7	28.1	32.3	28.7	30.0	33.7	32.6	41.7	27.8	33.2
무협지	7.9	6.1	7.8	6.6	7.1	7.6	6.7	6.1	7.9	7.2
수기/자서전/수필류	2.7	5.1	3.0	4.3	3.8	5.2	3.8	3.2	5.4	4.5
만화류	52.7	54.6	50.1	55.7	53.6	48.1	50.7	42.8	53.3	49.3
잡지류	1.6	1.0	2.0	0.9	1.3	2.2	1.6	2.5	1.6	2.0
기타	3.4	5.2	4.8	3.9	4.2	3.1	4.7	3.7	4.0	3.8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2004년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 더 확연하게 격차가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의 조사에서는 배치교와 미배치교간의 차이가 5% 정도에 머물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훨씬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학교 밖의 독서 환경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더 건전한 독서 경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전담 전문인력은 학생들이 읽는 책의 종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담 전문인력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오락적인 읽을거리에 치중하는 경향이 약하고 문학류와 다른 분야로 독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인력 요인은 학생들의 독서 분야를 건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학교도서관 물리적

환경요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영향력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학교도서관에 전담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학생들의 체계적이고 건전한 독서 생활 확립을 위해 무척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Ⅲ. 독서환경 의존 경향

학교도서관의 전담 전문인력이 학생들의 독서환경 의존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미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학교도서관의 인력 요소와 학생들이 읽을 책을 구하고 도서 정보원을 활용하는 행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생들의 독서 장소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탐구하는 것은 학교도서관의 전담 전문인력이 학생들의 독서환경 활용과 의존 경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며 학생들의 독서 습관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색해 보는 것이다.

1. 독서자료 입수 경로

자신이 직접 책을 사거나 부모님이 사다 주는 경우, 친구에게 빌려보거나 집에 있는 책을 보는 경우, 그리고 도서대여점에서 빌려보는 경우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교우관계, 그리고 가정환경에 따라 개인차가 날 수밖에 없는 사적 방법이라면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학급문고 등에서 빌려보는 경우는 누구나 비용 지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적 방법이다. 독서자료 입수 경로를 사적 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독서자료 접근의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공적 방법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독서자료 접근의 공공성이 높아져 독서 수준의 개인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독서 문화가 발달한 사회는 독서자료 입수 경로로서 공적 인프라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고 사적 방법에 의존하는 비중이 낮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평소에 읽고 싶은 책을 직접 사서 보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학교도서관에서 빌려보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부모님이나 친구를 통해 구하는 경우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독서자료 입수 경로를 보면 공적 방법에 의존하는 비율은 약 26%에 머무는 반면 사적 방법에 의존하는 비율은 약 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읽는 책을 입수하는 경로는 공공의 독서 인프라를 통하는 방법보다는 개별적이며 개인적인 방법과 능력에 주로 의존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중학생들에 비해 고등학생들이 공적 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은 읽을 책을 부모나 친구로부터 지원받거나

〈표 5〉 전담 인력 배치와 독서자료 입수 경로 (단위: %)

입수 경로	초		중		고		전체		전체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직접 사서 본다	19.9	23.1	23.7	32.3	22.9	29.6	22.0	28.7	26.0
부모님이 사다 주신다	17.5	18.2	11.1	12.5	6.5	3.7	11.7	13.4	12.7
친구에게 빌려본다	9.6	15.1	12.3	11.2	9.0	11.1	10.1	12.6	11.6
집에 있는 책을 읽는다	17.8	19.7	7.3	12.8	8.1	9.7	11.4	14.9	13.4
도서대여점에서 빌려본다	4.0	4.8	7.0	12.5	9.0	14.4	6.6	10.0	8.6
학급문고에서 빌려본다	3.7	5.0	7.0	4.5	3.0	2.8	4.3	4.4	4.4
학교도서관에서 빌려본다	18.9	8.0	22.2	6.8	37.0	22.7	26.4	9.3	16.3
공공도서관에서 빌려본다	6.5	4.7	7.6	5.8	4.2	4.6	5.9	5.3	5.6
기타	2.1	1.3	1.9	1.5	0.5	1.4	1.4	1.4	1.4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신이 직접 사보는 경향이 무척 강하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에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학생들의 독서자료 입수 경로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도서관에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과 학급문고를 이용하여 독서자료를 입수하는 경향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경향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적 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에서도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은 독서자료 입수 경로로서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26.4%로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은 9.3%밖에 되지 않았다. 학교도서관에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독서자료 입수를 학교도서관에 의존하는 비율이 약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독서자료 입수 경로로서 공적 방법에 의존하는 비율을 보면 학교도서관 인력 배치학교 학생들은 36.6%인 반면 미배치학교 학생들은 19.0%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적 방법에 의존하는 비율을 보면 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은 61.8%인데 반해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은 79.6%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학교도서관에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은 공적 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은 사적 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대상교와 비대상교간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대상교와 비대상교간의 차이는 전담 전문인력 배치교와 미배치교간의 차이에 비하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의 데이터를 보면 활성화 사업 대상학교 학생들의 사적 방법

의존율은 70.5%이고 활성화 사업 비대상학교 학생들의 사적 방법 의존율은 74.5%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공적 방법 의존율도 전자는 27.9%, 후자는 24.4%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학생들의 독서자료 입수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학교도서관의 물리적인 환경은 인적 요소에 비해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 독서자료 입수 경로 (단위: %)

구분 입수 경로	성 별		학 교 급			활성화사업		전담 인력		전 체
	남	여	초	중	고	대상 학교	비대상 학교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직접 사서 본다	25.0	27.2	21.7	30.1	25.1	23.9	28.5	22.0	28.7	26.0
부모님이 사다 주신다	14.5	10.3	17.9	12.1	5.5	13.3	12.0	11.7	13.4	12.7
친구에게 빌려본다	12.6	10.2	12.8	11.5	9.7	11.5	11.7	10.1	12.6	11.6
집에 있는 책을 읽는다	13.6	13.2	18.9	11.4	8.6	13.5	13.3	11.4	14.9	13.4
도서대여점에서 빌려본다	9.7	7.1	4.5	11.0	10.8	8.3	9.0	6.6	10.0	8.6
학급문고에서 빌려본다	4.1	4.8	4.5	5.1	2.9	4.2	4.6	4.3	4.4	4.4
학교도서관에서 빌려본다	13.8	19.7	12.6	10.9	32.2	18.3	14.0	26.4	9.3	16.3
공공도서관에서 빌려본다	4.9	6.4	5.5	6.3	4.3	5.4	5.8	5.9	5.3	5.6
기타	1.8	1.0	1.7	1.6	0.8	1.5	1.3	1.4	1.4	1.4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4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학교도서관의 전담 전문인력이 학생들의 독서자료 입수 경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의 인력이 학생들의 독서자료 입수 경로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7〉 독서자료 입수 경로: 2004년, 2006년 (단위: %)

구분 입수 경로	2004년					2006년				
	활성화사업		전담 인력		전 체	활성화사업		전담 인력		전 체
	대상 학교	비대상 학교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대상 학교	비대상 학교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사적 방법 의존	74.7	76.3	68.0	79.7	75.5	70.5	74.5	61.8	79.6	72.3
공적 방법 의존	23.6	21.9	30.3	18.6	22.8	27.9	24.4	36.6	19.0	26.3

2006년의 조사에서는 2004년의 조사에 비해 사적 방법 의존 비율이 3% 정도 감소하고, 공적 방법 의존 비율은 4% 정도 증가하였다. 그리고 활성화 사업 대상교의 경우도 각각 비슷한 정도의 변화 양상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전담 전문인력 배치학교의 경우 다소 큰 폭으로 변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적 방법에 대한 의존율은 6% 정도 감소하였고, 공적 방법에 대한 의존율은 6%

정도 증가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도서관의 전담 전문인력이 학생들의 독서 자료 입수 경로 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생 독서자료 입수 경로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학교도서관 환경 요인보다도 인력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독서 장소

학생들은 주로 어떤 장소에서 독서를 하는가. 조사 결과 학생들의 독서 장소는 집이 6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교실로 22.8%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4.5%, 공공도서관은 1.2%로 학생들의 독서 장소는 공공의 독서 환경보다는 개인적 환경이 주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독서 장소는 학교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집이 72.3%와 73.3%로 사적 독서 공간으로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집과 교실이 49.1%와 41.0%로 초·중고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교실이 주요 독서 공간으로 이용되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담 전문인력 배치 여부는 학생들의 독서 장소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집에서 책을 읽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7% 정도 낮고 교실에서 읽는다고 응답한 비율과 도서관에서 읽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6%, 1.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의 전담 전문인력 배치가 학교에서의 학생 독서 활동을 더욱 더 활성화 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변수는 전담 인력의 변수와 정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성화 사업 대상교의 학생들은 비대상교 학생들에 비해 집에서 독서한다는 응답이 4.6%

〈표 8〉 독서 장소 (단위: %)

독서 장소	구분		성 별			학 교 급			활성화사업		전담 인력		전 체
	남	여	초	중	고	대상 학교	비대상 학교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집	67.4	67.6	72.4	73.3	49.1	69.6	65.0	63.4	70.4	67.5			
교실	22.1	23.7	16.6	18.3	41.0	19.5	26.7	26.4	20.3	22.8			
학교도서관(도서실)	4.8	4.1	5.0	4.0	4.8	4.6	4.4	5.3	3.9	4.5			
공공도서관	1.2	1.2	1.4	1.1	1.2	1.3	1.1	1.1	1.3	1.2			
만화가게/도서대여점	1.8	1.0	1.3	1.7	1.2	1.7	1.1	1.5	1.4	1.4			
기 타	2.7	2.4	3.5	1.6	2.6	3.2	1.8	2.2	2.8	2.5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높은 반면 교실에서 독서한다는 응답은 7.2% 낮게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의 물리적 환경만 가지고는 학교에서의 학생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지 못하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의 조사 결과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집에서 읽는다는 응답은 감소했고 교실에서 읽는다는 비율은 증가하였다. 2004년의 조사에서는 집에서 읽는다는 응답은 75.7% 이었고, 교실에서 읽는다는 응답은 14.3% 이었다. 그리고 전담 전문인력 배치 여부에 따른 차이도 2004년에 비하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2004년의 조사에서는 전담 인력 배치교가 집에서 읽는 비율은 3% 정도 낮고 교실에서 읽는 비율은 2% 정도 높았는데 2006년 조사에서는 이 격차가 더 커진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인력 요인이 학생 독서 공간의 공공화를 자극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독서자료 입수 경로와 독서 장소가 전반적으로 사적 영역에 크게 의존하는 구도 속에서 학교도서관의 전담 전문인력 요소가 공적 영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독서가 개인의 능력과 문화적 행태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공적 인프라와 문화에 의존하는 경향을 강화하는 일에 도서관 전문 인력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원리를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독서 수준이 평준화되고 독서 행태가 건전하게 정착하려면 학교도서관에 전담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IV. 학교도서관 이용

학교도서관의 전담 전문인력은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학교도서관 인력은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학교도서관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학교도서관의 전담 전문인력이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률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학생들의 독서 행태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학교도서관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 능력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학교도서관 이용률

학교도서관을 주 1-2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를 고정 이용자라고 하면 전체 학생의 41.3%를 학교도서관 고정 이용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월 1-2회 미만으로 이용하는 소극적 이용자는 34.8%, 전혀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23.8%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교도서관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학교도서관 이용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고등

학생, 중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이용률에서 도서관 활성화 사업보다는 전담 인력 배치가 훨씬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를 보면 도서관 활성화 사업 대상교와 비대상교의 고정이용자 비율은 각각 43.2%와 39.1%로 큰 차이가 없으나 전담 인력 배치교와 미배치교의 고정이용자 비율은 각각 51.1%와 34.5%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 무이용자 비율도 활성화 사업 대상교와 비대상교는 각각 19.7%와 28.8%로 나타난 반면 전담 인력 배치교와 미배치교는 각각 13.1%와 31.3%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 이용률에 대한 영향력에서 환경 요인보다는 인력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표 9〉 학교도서관 이용률 (단위: %)

구분	성 별		학 교 급			활성화사업		전담 인력		합 계
	남	여	초	중	고	대상 학교	비대상 학교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이용 빈도										
거의 매일	6.9	6.3	8.8	5.6	5.3	7.1	6.1	8.3	5.5	6.7
주 3-4회	10.3	12.4	15.6	8.5	9.1	12.2	10.1	14.2	9.1	11.2
주 1-2회	20.8	27.0	26.6	19.4	25.7	23.9	22.9	28.6	19.9	23.4
월 1-2회	16.8	17.9	18.1	16.6	17.1	18.7	15.6	19.4	15.7	17.2
월 1회 미만	17.3	18.0	14.5	17.8	22.2	18.4	16.6	16.4	18.5	17.6
전혀 이용 안함	28.0	18.3	16.3	32.1	20.6	19.7	28.8	13.1	31.3	23.8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10〉 전담 인력 배치와 학교도서관 이용률 (단위: %)

구분	초		중		고		전체		전 체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고정 이용자	56.3	47.2	49.6	27.8	46.9	26.7	51.1	34.5	41.3
소극적 이용자	31.4	33.6	32.6	35.0	42.4	32.7	35.8	34.2	34.8
무이용자	12.2	19.2	17.7	37.4	10.7	40.7	13.1	31.3	23.8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10〉과 같이 전담 인력 배치여부에 따른 학교도서관 이용률 차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더 자세하게 영향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학교도서관 인력 배치 여부에 따라 도서관 이용률에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전담 인력 배치 여부에 따른 고정 이용자의 차이가 9% 정도이지만 중학생은 약 22%, 고등학생은 약 20%로 나타났다. 또한 무이용자 비율도 초등학생의 경우 7% 정도 차이가 나타났지만 중학생은 약 20%, 고등학생은 무려 30%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년이 올라 갈수록 학교도서관에 전담 전문 인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학교도서관 이용률에 큰 격차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학교도서관 이용률의 전담 인력 영향력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2. 학교도서관 이용 목적

주 1-2회 이상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고정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이용 목적을 조사한 결과 가장 주된 목적은 책을 읽거나 빌리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응답자의 43.5%는 책을 빌리기 위해, 38.6%는 책을 읽기 위해라고 응답하여 학교도서관이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학교도서관 이용 목적 (단위: %)

이용 목적	구분		학 교 급			활성화사업		전담 인력		합 계
	성 별		초	중	고	대상 학교	비대상 학교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학교 공부/숙제를 위해	9.9	7.8	12.0	8.0	3.9	8.1	9.8	7.2	10.5	8.9
책을 읽기 위해	40.8	36.3	50.6	38.2	15.1	36.3	41.7	33.4	43.9	38.6
책을 빌리기 위해	38.9	48.4	31.9	40.6	70.9	46.1	40.1	49.5	37.4	43.5
독서프로그램 참여 위해	2.5	4.0	2.1	3.7	4.7	3.5	2.8	4.0	2.5	3.2
기타	7.9	3.6	3.5	9.4	5.4	6.0	5.6	5.9	5.8	5.8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런 경향은 각각의 변인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가령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책을 읽는 목적으로, 여학생은 책을 빌리는 목적으로 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교급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책을 읽기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50.6%로 나타난 반면 고등학생은 책을 빌리기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70.9%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학교도서관을 주로 책을 읽는 공간으로 이용하지만 고등학생은 주로 머무는 것 보다는 잠시 들러 책을 빌리는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에서의 시간적 여유와 관계가 있는 이용 패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전담 인력 배치 여부에 따라서도 다소간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활성화 사업 대상학교의 학생들은 책을 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비대상학교의 학생들은 책을 읽기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전담 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은 책을 빌리기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은 책을 읽기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통상적으로 학교도서관 환경이 개선되고 전담 인력이 배치되면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하고 머물게 하는 기능들이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조사 결과에서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도서관 활성화 사업 대상교와 전담 인력 배치교의 학생들이 도서관에 머물러 책을 읽는 것보다는 잠시 들러 책을 빌리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의 본원적 기능이 교수 학습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과 과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목적은 아직 본질적 영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응답자의 8.9% 만이 학교 숙제나 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학교도서관을 공부와 과제를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의 비율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12.0%로 가장 높고 중학생은 8.0%, 고등학생은 3.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와 학습의 기본 방편으로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관행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낮아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 관행이 아직은 견고한 상황이고 학교도서관의 기본 여건이 불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의 기능이 독서를 지원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교도서관 이용 만족도

주 1-2회 이상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고정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 기준으로 전체 평점이 3.5점으로 나타나 학교도서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학교도서관 만족도 (단위: %)

구분 \ 만족도	성 별		학 교 급			활성화사업		전담 인력		전체
	남	여	초	중	고	대상 학교	비대상 학교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매우 만족스럽다(5)	19.1	18.3	27.3	15.8	5.8	20.9	15.9	20.1	17.3	18.7
만족스럽다(4)	32.2	34.5	34.5	33.4	30.7	33.8	32.6	36.2	30.4	33.3
보통이다(3)	32.5	34.3	28.3	35.3	40.9	31.7	35.6	31.3	35.5	33.4
불만족스럽다(2)	9.4	9.6	7.6	9.8	12.8	7.4	12.2	6.6	12.4	9.5
매우 불만족스럽다(1)	6.8	3.3	2.3	5.7	9.7	6.2	3.7	5.8	4.4	5.1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 점	3.5	3.5	3.8	3.4	3.1	3.6	3.5	3.6	3.4	3.5

그런데 학교급에 따라 만족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이 한 가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3.8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고등학생은 3.1에 머물러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서관 활성화 사업 대상교의 학생들이 비대상교 학생들에 비해 만족도가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인력 배치 여부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전담 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만족도가 0.2 높게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보면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만족도는 물리적 환경보다 인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4년도의 조사 결과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3>에서 알 수 있듯이 2004년도의 조사에서는 도서관 활성화 사업 대상교(3.8)와 비대상교(3.5)간의 만족도 편차가 전담 인력 배치교(3.7)와 미배치교(3.6)간의 만족도 편차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2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물리적 조건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하고 인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은 증가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학교도서관을 설치한 초기에는 물리적 요소가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흐른 이후에는 인력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3> 학교도서관 만족도 비교: 2004년, 2006년 (5점 척도 평점)

연도	구분	성 별		학 교 급			활성화사업		전담 인력		전 체
		남	여	초	중	고	대상 학교	비대상 학교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2004		3.7	3.6	3.9	3.5	3.5	3.8	3.5	3.7	3.6	3.7
2006		3.5	3.5	3.8	3.4	3.1	3.6	3.5	3.6	3.4	3.5

한편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간의 학교도서관 만족도 편차는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배치교와 미배치교간에 초등학교는 3.8 대 3.7, 중학교는 3.8 대 3.2, 고등학교는 3.1 대 3.1로 나타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거의 차이가 없고 중학교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유무에 따라 학교도서관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학생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중학생의 경우 학교도서관 이용률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데 전담 전문인력에 의한 만족도 영향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원인에 대한 더욱 더 정밀한 탐구와 분석이 요구되며 이를 통한 중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 제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학교도서관 이용 교육

학교도서관 이용이나 독서와 관련한 교육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학생의 61.4%는 경험이 있

<표 14> 독서 및 학교도서관 이용교육 경험 (단위: %)

도서관 이용교육 경험	구분	성 별		학 교 급			활성화사업		전담 인력		전 체
		남	여	초	중	고	대상 학교	비대상 학교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있다		55.2	69.5	66.8	61.7	52.4	64.8	57.4	75.5	51.6	61.4
없다		44.8	30.5	33.2	38.3	47.6	35.2	42.6	24.5	48.4	38.6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고 38.6%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만 도서관 이용과 독서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표 14〉에 나타나듯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교육 유경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은 교육경험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대상교와 비대상교간, 그리고 전담 전문인력 배치교와 미배치교간에도 일정한 편차가 나타났는데 인력 요인에 의한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은 75.5%가 교육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은 51.6%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의 인력 배치 여부에 따라 독서교육과 도서관 이용교육의 경험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 전담 인력 배치와 독서 및 도서관 이용교육 경험 (단위: %)

도서관 이용교육 경험	구분	초		중		고		전체		전체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있다		81.8	56.2	79.9	55.0	66.0	25.2	75.5	51.6	61.4
없다		18.2	43.8	20.1	45.0	34.0	74.8	24.5	48.4	38.6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담 인력 배치 여부에 따른 교육경험 유무는 학교급에 따라 다소 다른 편차로 나타났다. 전담 인력이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각각 81.8%와 79.9%가 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66.6%만 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전담 인력이 없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각각 43.8%와 45.0%만 교육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74.8%가 교육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고등학교의 특성상 전반적으로 독서 및 도서관 이용교육의 경험이 저조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서 및 도서관 이용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교육과 도서관 이용교육이 독서생활과 학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낮은 긍정의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 기준 평점 3.3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3.2)보다 여학생(3.3)이 조금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생(3.6)에 비해 중학생(3.1)과 고등학생(3.0)은 낮게 나타났다. 도서관 활성화 사업 대상교(3.3)와 비대상교(3.2)간, 그리고 전담 인력 배치교(3.3)와 미배치교(3.2)간의 편차도 일정하게 나타났다.

전담 인력 배치 여부에 따른 독서 및 도서관 이용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학교급별로 세분해 보면 전담 인력에 따른 편차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전담 인력 배치교(3.5)가 미배치교(3.7)보다 낮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중학생은 3.4 대 3.0, 고등학생은 3.1 대 2.9로 배치교가 미배치교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초등학생의 경우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이 독서 및 도서관 이용교육의 효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전담 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이 훨씬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전체적으로 전담 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독서 및 도서관 이용교육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간에 반대의 양상이 나타난 이유는 탐색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표 16〉 전담 인력 배치 여부와 독서 및 도서관 이용교육 만족도

독서 및 도서관 이용교육 효과 인식	구분	초		중		고		전체		전체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5점 척도 평점		3.5	3.7	3.4	3.0	3.1	2.9	3.3	3.2	3.3

5. 독서 관련 행사

학교에서 실시하는 독서 관련 행사가 학생의 독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결과 그다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에서 알 수 있듯이 독서행사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하게 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28.5%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독서 행사가 독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독서행사와 독서의 관계	구분		학교 급			활성화사업		전담 인력		합계
	남	여	초	중	고	대상 학교	비대상 학교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독서 행사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하게 된다	25.8	32.1	45.0	22.5	13.2	29.4	27.4	31.0	26.7	28.5
행사 때는 독서를 하게 되지만 그 후 효과 없다	30.0	35.0	24.5	35.8	37.6	34.7	29.1	35.0	30.3	32.2
억지로 독서하게 되어 오히려 독서의욕이 사라진다	19.4	18.3	11.3	22.2	25.0	16.6	21.7	15.4	21.4	18.9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행사하지 않는게 좋다	5.6	4.5	3.9	5.5	6.4	5.4	4.9	4.5	5.6	5.1
독서 관련 행사의 경험이 전혀 없다	19.2	10.0	15.3	13.9	17.7	13.9	16.8	14.2	16.0	15.3
기타	4.6	2.8	4.7	3.3	3.8	3.1	4.7	3.7	4.0	3.8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독서행사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하게 된다는 응답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은 무척 높게 나타났다. 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전담 인력 배치 요인에 따라서도 크진 않지만 편차가 나타났다. 독서관련 행사가 오히려 독서 의욕을 떨어뜨린다

는 응답을 한 학생의 비율을 보면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높고 활성화사업 대상교와 전담 인력 배치교에 비해 비대상교와 미배치교의 학생들이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학교도서관 환경이 불비한 학교의 학생들과 전담 인력이 없는 학교의 학생들이 독서행사가 독서 생활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8〉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급별로 보면 학교도서관 전담 전문인력의 배치 여부에 따라 독서행사와 독서의 영향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독서 행사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은 큰 차이가 없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전담 인력이 배치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 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도는 독서 행사가 독서의욕을 사라지게 한다는 응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독서 행사가 오히려 독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에서도 전담 인력 미배치 학교의 학생들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학교도서관에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독서행사가 독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도서관의 전담 전문인력이 주도하는 독서 프로그램과 일반 교과교사가 주도하는 독서 프로그램의 내용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서행사가 학생들의 독서 욕구를 자극하고 독서 흥미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에 전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주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과제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도서관 이용율과 이용 만족도, 그리고 학교도서관 이용교육과 독서관련 행사에 있어서도 전담 전문인력의 영향력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표 18〉 전담 인력 배치 여부와 독서행사가 독서에 미치는 영향(단위: %)

독서행사와 독서의 관계	초		중		고		전체		합계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독서 행사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하게 된다	45.5	44.6	33.3	18.6	15.0	9.7	31.0	26.7	28.5
행사 때는 독서를 하게 되지만 그 후 효과 없다	28.9	21.4	34.9	36.2	41.0	31.0	35.0	30.3	32.2
역지로 독서하게 되어 오히려 독서의욕이 사라진다	9.0	12.9	14.0	25.2	22.7	29.6	15.4	21.4	18.9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행사하지 않는 게 좋다	3.1	4.5	4.4	5.9	5.9	7.4	4.5	5.6	5.1
독서 관련 행사의 경험이 전혀 없다	13.5	16.6	13.3	14.1	15.5	22.2	14.2	16.0	15.3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학교도서관 이용율이 높고 학교도서관의 서비스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독서관련 행사 등을 통해 독서를 활성화 하는 데 있어서도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이 더욱 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학교도서관을 통한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담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원리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대구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전담 전문인력의 배치 여부가 학생독서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확인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관에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가벼운 읽을거리보다 문학류와 교과관련 도서를 더 선호한다. 학교도서관에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에 비해 만화, 무협지, 판타지, 추리소설 분야를 덜 선호하고 소설류, 역사, 과학 분야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서대여점에서 대여하는 도서의 종류에서도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에 이런 경향이 그대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에 전담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학생들의 독서 경향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도서관에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공적 독서환경을 이용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학생들의 독서자료 입수 경로와 독서장소가 주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학교도서관에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은 도서관이나 학교 등 공적 공간을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상황과 여건에 따른 차이를 극복하게 하여 누구나 공정하게 독서 환경에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에 전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공적 인프라의 활용을 유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도서관에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학교도서관을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용하며 학교도서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인다.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학교도서관 이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서교육과 도서관 이용교육의 경험이 더 많을뿐만 아니라 교육 효과에 대한 태도도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서관련 행사가 독서를 강화하고 자극하는 측면에서도 학교도서관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이 더욱 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학교도서관에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은 독서행태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긍정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 요소의 영향력은 물리적 요소의 영향력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학생들의 독서 생활을 활성화 하고 독서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에 전담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학생들의 독서 수준을 높이고 독서 성과를 확대하려는 것보다 학교도서관에 전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독서 생활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영수.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효율적인 독서지도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국립중앙도서관·한국출판연구소. 2006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6.
- 권태봉. 고등학생의 독서실태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독서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김강선.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도서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3.
- 김동이. 초등학생의 독서실태 분석과 바람직한 독서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김미경. 청각장애학교 고등부 학생들의 독서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김상권. 도시와 농촌 아동의 독서 실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 김세영.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과학 관련 독서 실태와 성향 조사.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노은희. 전북지역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독서실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노지숙. 학교도서관의 독서지도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 대구광역시교육청. 2004년 대구 학생 독서 실태 조사.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2004.

- 도유미.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 박경애. 지체부자유학교 고등학생의 독서실태 조사.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 박종숙. 도·농 지역 독서실태 비교연구: 전주와 부안 지역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신수진. Storytelling을 통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독서흥미 유발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안수상. 초등학생들의 독서실태 분석을 통한 독서지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 연은미.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프로그램 모형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
- 윤정현. 초등학생의 독서실태 분석을 통한 독서지도 개선방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3.
- 윤충원. 실업계 고등학생의 독서실태 분석에 따른 독서력 신장 방안.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이선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초중학교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이혜영.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독서행태 및 독서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3.
- 임한별. 독서실태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독서지도 방안 연구: 7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 정재학. 중학생의 독서 실태 분석을 통한 '아침독서 10분 운동'의 효과 검증과 지도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제수정. 실업계 고등학생의 독서실태와 독서교육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주영순. 초등학교 학생의 독서실태 분석과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허창도. 도시와 도서 벽지 아동의 독서실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